

제2공항 도민공청회 또 파행... 갈등 여전

어제 성산읍에서 공청회 반대측 단상 점거로 취소 몸싸움 일고 고성 오가기도 한 참석자 "양측 의견 듣고 타당성 가려야" 조언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과제 발굴을 위한 도민공청회가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에서도 파행으로 끝났다.

제주도는 4일 오후 3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국민생활체육관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제2공항 건설 반대측이 공청회가 열리기 전부터 체육관 내 단상을 점거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이 날 제주도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공청회 시작 전 오후 2시부터 단상 앞에 공무원 30여명을 배치했다. 그러나 공청회 개최 30분 전부터 반대측에서 단상을 점거하기 위해 단상 앞에 배치된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반대 단체 등과 고성 오가며 일촉즉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강원보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장은 "제주의 미래는 도민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미래를 결정할 자격은 없다"면서 "제주도를 싸구려 관광지로 전락시킨 팽창위주

의 정책이야말로 제주도를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찬성하러 나와주신 일부 도민 여러분, 제주의 미래를 생각해 달라"며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잘살고 질높은 관광지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 제주도가 예정된 공청회를 열기 위해 단상 앞에 배치된 공무원들을 철수시키자, 반대측은 단상에 올라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외치며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반대측) 여

러분들이 단상을 점령하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단상 밑으로 내려와 행사 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측이 계속해서 단상을 점거하자, 결국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공청회 취소를 공지하고 참석한 주민 등을 돌려보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A씨는 "반대측 찬성이든 양측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을 가려야 한다"면서 "공청회가 지난달에 이어 오늘도 파행을

맞이하면서 시간 낭비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는 이날 공청회 파행과 관련 규탄하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기자회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두 차례의 공청회가 무산되다 보니 도민의 알 권리 내지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원천적으로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러한 내용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4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국민생활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을 위한 도민 공청회'가 반대측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사진은 제2공항 반대측 주민들이 이날 공청회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는 모습. 강희만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까지 제주국립묘지 완공"

국가유공자 등 초청 오찬서 문재인 대통령 의지 표명 유공자정책 방향 등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1년까지 제주국립묘지를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2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진행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이들과 그 유족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제주국립묘지를 2021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들이 우리 곁에

계실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투입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석 6·25전사유해발굴유족, 이성우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장, 강길자 전불군경미망인회장, 강영석 4·19혁명공로자회회장, 권문식 6·18자유상자회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가족, 후손까지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유공자, 또 보훈가족과 함께 희망의 길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비 3억원(지방비 100%)을 투입해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품 구매자에게 도의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제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구매한 전통식품을 대상으로 도의 택배발송건당 택배비용의 50%인 2500원, 개인당 연간 최대 30건(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제1회 추경예산확정 공고일인 지난 3월 25일 이후 택배발송 건부터 오는 11월 29일 발송 건(8개월간)까지이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표성준기자

"제주마 보존 위해 씨수마 규정 완화"

도, 제주마 혈통보존·경주자원 확대방안 공청회 교배조합 규정 완화로 산업적 불균형 해소 기대

제주마 혈통보존과 경주자원 확대를 위해 등록규정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제주 도농어업인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마 혈통보존 및 경주자원 확대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제주마 혈통보존 및 경주자원 확대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주내용은 제주시 종모마(씨수마)

규정 개선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마 경주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제주경마의 질 저하로 '경마팬'이 이탈하고 매출 감소로 마사회·마주·학계·기관·생산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마 생산과 임으로 지난해 말 기준 4000두를 상회했지만 제주마로 적합한 제주마는 제한되면서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씨수마의 근친이 위험수준에 이르면서 규정이 시급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현행 '8세대 이내 기초등록 말'을 선조로 할 경우 씨수마 지정 제한의 규정을 '3세대(F3)부터 자율교배 원칙' '2세대(F2)와 혈통등록마·3세대 교배 한시적 허용'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으로 혈통마와 기초등록 전세대 후손이 직접 교배를 해야 하지만, 기초등록후손 2세대와 3세대도 선택적으로 교배가 한시적으로 가능해지게 된 셈이다.

도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6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후 2020년 시행할 계획이다. 이소진기자

"항철 우수성 인정... 소득 향상 기대"

제주시, 향토산업 우수지구

제주시는 '제주항철'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실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육성하고 1·2·3차 산업과 연계해 지역전락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추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2018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사업에 대해 매출액, 일자리창출, 연구개발, 자립화 노력, 발전가능성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전국적으로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우수지구 4개 지역(제주, 경남, 경북, 강원)이 선정됐으며 그 중 '제주항철'이 1위를 차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향토산업 우수지구 선정에 향후 희망하는 제품에 대한 판촉지원 사업에 참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제주항철의 우수성을 통해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향토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항철나무는 상록활엽교목으로 나무인삼이라 불리며, 제주에선 제주자원식물항철사업단이 연구개발을, ㈜비케이바이오는 제품생산·유통을 전담하고 있다. 김현석기자

탐라선비문화학교

성균관유도회 제주특별자치도본부에서는 선비정신 소양을 통한 지역사회의 도덕성 회복 및 단절되어가는 우리 문화 가치를 소중히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2019년 탐라선비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수업장소: 성균관유도회 제주특별자치도본부 강의실 (제주도유림문화원 2층(삼성초등학교 정문 앞))
- 전학기 수업과목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2019.5.04~6.3(토)	개강식 및 제과목 / 논어(論語) / 김동식
2019.6.5~6.28(수)	제2과목 / 생활역학 / 이용림
2019.7.6~7.27(토)	제3과목 / 제주명사산책 / 이진영
2019.8.3~8.31(토)	제4과목 / 제주역사 돌아보기 / 신소연/김경주
2019.9.7~9.28(토)	제5과목 / 가정의례(축문) / 김익선
2019.10.5~10.26(토)	제6과목 / 제주의 금석문 옛보기 / 오창림
2019.11.2~11.23(토)	제7과목 / 제주 고문서 읽기 / 문창선
2019.11.30	수료식

- 수업료 무료
- 신청안내
 - 성균관유도회 제주특별자치도본부 (제주도유림문화원 2층)
 - 담당자: 이창식 (010-8661-9001)

성균관유도회 제주특별자치도본부
회장 강상률

제13회 (재)제주시함덕향우회 어울림한마당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좋은 계절에 고향선·후배님과 향우회원의 단합과 우의를 다지는 제13회 (재)제주시함덕향우회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일 시 : 2019년 6월 9일(일) 오전 10시
- 장 소 : 제주여성 실내체육관
- 행사내용 : · 남·여 혼성게임, 단체·어린이게임 · 노래자랑 및 경품추첨
- 참가자 : 식사제공, 기념품 증정, 경품 추첨 (어린이 등 가족 동반하여 행복한 추억 만드세요)
- 연락처 : 회장 유창호 010-8166-6661
사무국장 김태정 010-9839-0033
재무이사 함성민 010-3864-3100

(재)제주시함덕향우회 회장 유창호

수상 전국시조가사시극경향대회 입상자

일시 2019년 5월 25일~26일(2일간)
장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대상부	1등	2등	3등	서울 서대문 아연 편한세상 세종시 조지원부 두원로 충남 예산군 단산온천로
국창부	1등 김진희	2등 박옥래	3등 김태중	제주시 진군오길33-14 서귀포시 동흥동162-30 제주시 애월읍 남읍로6길 23
명인부	1등 김철수	2등 조성순	3등 정해정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1호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9의 25호 3층 제주시 연동11길 26
특부	1등 허계생	2등 이지연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2길 서귀포시 동광동 9-3
합창부	1등 강승민	2등 강승희	3등 최정희	충북 괴산군 청천면 금명로 월문길86 제주시 우령6길 16-8
갑부	1등 김정희	2등 오성정		제주시 아라동 기자길 38 제주시 도남동 743 편한세상
을부	1등 이연옥	2등 최형철	3등 부영배	충북 보은군읍 속리산면 충북 보은군읍 속리산길 제주시 구남로 31 제주시 삼성로9길 30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대화장 이경용
(사)한국시조명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이복자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대원 모집

산사나이 오희준은 히말라야 8,000m 10좌를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했으며, 남북극까지 횡단하면서 세계 산악인으로써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전정신을 남기고 간 오희준님은 지금도 히말라야의 품에서 아직도 도전정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9년 6월 16일(일) 08:00
장소 ·야구장 앞 시계탑 집결 ·서귀포시 : 08시 토크방 오희준 추모공원 집결

- 인원: 선착순 40명
- 비용: 10,000원(교통비 및 산악보험)
 농협 351-1060-7931-53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등산교실
- 준비물: 도시락, 식수 및 산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 산행코스: 무오법정사-강정천-연몰-하원수로길-무오법정사

산악인 오희준 그는 누구인가?

1970년 8월 16일생 1989년 2월 서귀동고교 졸업
1989년 3월 제주대학교 입학, 제1사단장 기병
1990년 8월 20일 내할 히말라야 초호유(8,201m)등정
2000년 7월 30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등정
2000년 10월 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시파브(8,031m)등정
2001년 4월 29일 내할 히말라야 로제(8,516m)등정
2001년 7월 2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K2(8,611m)등정
2002년 5월 4일 내할 히말라야 안나푸르나(8,091m)등정
2004년 1월 12일 남극원정 44일간 세계최단기복 성공
2006년 5월 1일 94일간 도보로 북극점 도달
2006년 5월 11일 내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등정
2006년 7월 8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시브(8,083m)등정
2006년 7월 31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시브(8,083m)등정
2006년 9월 20일 내할 히말라야 마나슬루(8,156m)등정
2007년 배림해협 횡단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벽 코리안루트 개척중 캠프4지점인 7,700m 지점에서 '산사나이 하늘을 오르다'
2008년 9월 30일 체육관광청 명예장수승(체육훈장 명예장수 제51호)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이사장 현 학봉
연락처: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전무이사(010-3691-7771)